

TEXTILE & FASHION
TREND ISSUEFABRIC DIVE
Virtual Fabric Business Platform

미래 지향적 이니셔티브 DFDC, 사진 David Cash

FASHION TECH 9월에 디지털 패션 필름 페스티벌 시작
디지털 패션 디자이너 협의회(DFDC) 출범⁽¹⁾

패션 산업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미래 지향적 이니셔티브 디지털 패션 디자이너 협의

회(Digital Fashion Designers' Council)가 6 일 공식 출범한다.

이 협의회는 웹3를 대중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로, 캐시 랩스 창립자 데이비드 캐시가 설립했다.

이사회에는 ShowStudio 창립자 닉 나이트, Red Dao 창립 멤버 메건 카스파, 3D 아티스트

안토니 투디스코, DressX 창립자 다리아 사포 발로바와 나탈리아 모데노바 등 20여명 이상의

주요 패션 거물들로 구성됐다.

DFDC는 전략적 파트너십과 글로벌 IRL+URL

활성화를 통해 브랜드, 플랫폼 및 사용자의 인

센티브를 조정에 디지털 패션과 기존 패션 생태

계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의회는 Reality Spectrum Matrix(RSM)라

는 도구를 설계하여 가상 룩을 다양한 플랫폼에

서 선보일 계획이다. RSM은 다양한 디지털 및

물리적 경험 간의 원활한 연결을 용이하게 하는

중개자 역할로 디지털 여정의 여러 부분을 연결

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9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디지털 패션 필름

페스티벌을 기획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디지털

활성화 및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파

리, 뉴욕, 런던 등에서 팝업 행사를 개최할 계

획이며, Dolce & Gabbana의 NFT 프로젝트

Collezione Genesi와 Diesel의 Metamorph

Web3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아크테릭스 로봇 팬츠 MOGO™

FASHION TECH
아크테릭스, 바지에 로봇을 달다⁽²⁾

Skip과 세계 최초의 전통 팬츠 MO/GO™ 출시

아크테릭스(Arc'teryx)가 스킵(Skip)이 인간의

움직임을 더욱 즐겁게 만들기 위해 세계 최초의

전통 바지 모고(MO/GO™)를 출시했다.

MO/GO™는 등산 바지에 근력 강화 외골격 웨

어러블 로봇을 덧댄 모습이다. 사용자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구력을 증가시키

고 통증을 줄이는 웨어러블 로봇 기술로 노화,

피로, 부상으로 인한 이동성 문제를 해결한다.

무릎에 가벼운 전기 모터를 장착해 오르막길을

갈 때 착용자의 근력을 강화하고 내리막길에서

는 충격을 흡수해준다. 배터리로 작동되는 모터

가 센서와 컴퓨터 모듈에 연결되어 사용자의 움

직임을 예측하고 보조한다.

아크테릭스의 시그니처 제품인 감마 팬츠

(Gamma Pant)에 시스템을 통합해, 통기성, 마

모 저항성 및 활동적인 활동을 위한 소프트셀

스트레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 모터의 힘을 다

리 전체에 분산시키기 위해 맞춤형 탄소 지지

구조를 공동 제작하여 장시간 하이킹 중에도 편

안함을 보장한다.

한편 구글 X프로젝트로 시작되어 2023년에 독

립한 로봇 스타트업 스킵의 공동 창립자인 캐서

린 질랜드와 안나 루미안체바는 건강 문제로 인

해 사랑하는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축소되는 것

을 목격한 개인적인 경험에 있다. Skip은 아크

테릭스의 어드밴스드 컨셉팅과 협력하여 MO/

GO™를 개발했다.

세련되고 슬림한 디자인의 이 제품은 7월 24일

부터 예약을 받고 있고, 2025년 말에 배송될 예

정이다. 가격은 5천달러로 책정됐다.

2024
PREVIEW IN SEOUL
DIGITAL SHOW

Seoul International Textile Fair (Seoul, South Korea)

ONLINE
SHOWROOMSEARCH
ITEMSMY
FAVORITES

SUPPLIER 577+

ITEM(PHOTO) 1960+

VIDEO 180+

PIS 디지털쇼관

Copyright © by Preview in Seoul 2024 QF DO All Rights Reserved.

TEXTILE

프리뷰인서울, 21일 역대 최대규모 개막⁽³⁾

국내외 574개사, 887 부스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

대한민국 대표 섬유교역전인 '프리뷰인서울

2024(Preview In Seoul)'가 오는 21일 서

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막한다.

8월 21~23일 3일 동안 열리는 '프리뷰인서

울 2024'는 국내외 574개사 887부스 규모

로 지난해 대비 13% 증가해 코로나 이후 역

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비욘드 더 웨어브' 컨셉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패션 브랜드와 협업 부스를 꾸미

는 효성티앤씨관을 비롯해 덕산엔터프라이

즈, 원창머티리얼, 렌징, 시마세이키, 웨이키

아오 텍스타일 등 섬유원사, 직물, 부자재,

패션의류, 기계, 패션테크 전문기업 등 국내

외 기업들이 총망라된다.

전시장은 고감성, 지속가능성, 친환경, 고기

능성 첨단소재, 디지털, AI 등 테마별로 구성

해 참관객의 편의를 높인다.

8월 21일 개막행사로 국내 섬유 소재를 팔

용한 '얼린' 이성동, '리이' 이준복, '매종니

카' 고미진 디자이너의 협업 패션쇼가 열리

고 21일, 22일 양일간 부대행사로 다양한

혁신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21일에는 산업연구원, 커넥트소스에서 발

표하는 <섬유패션 새로운 도전> 세미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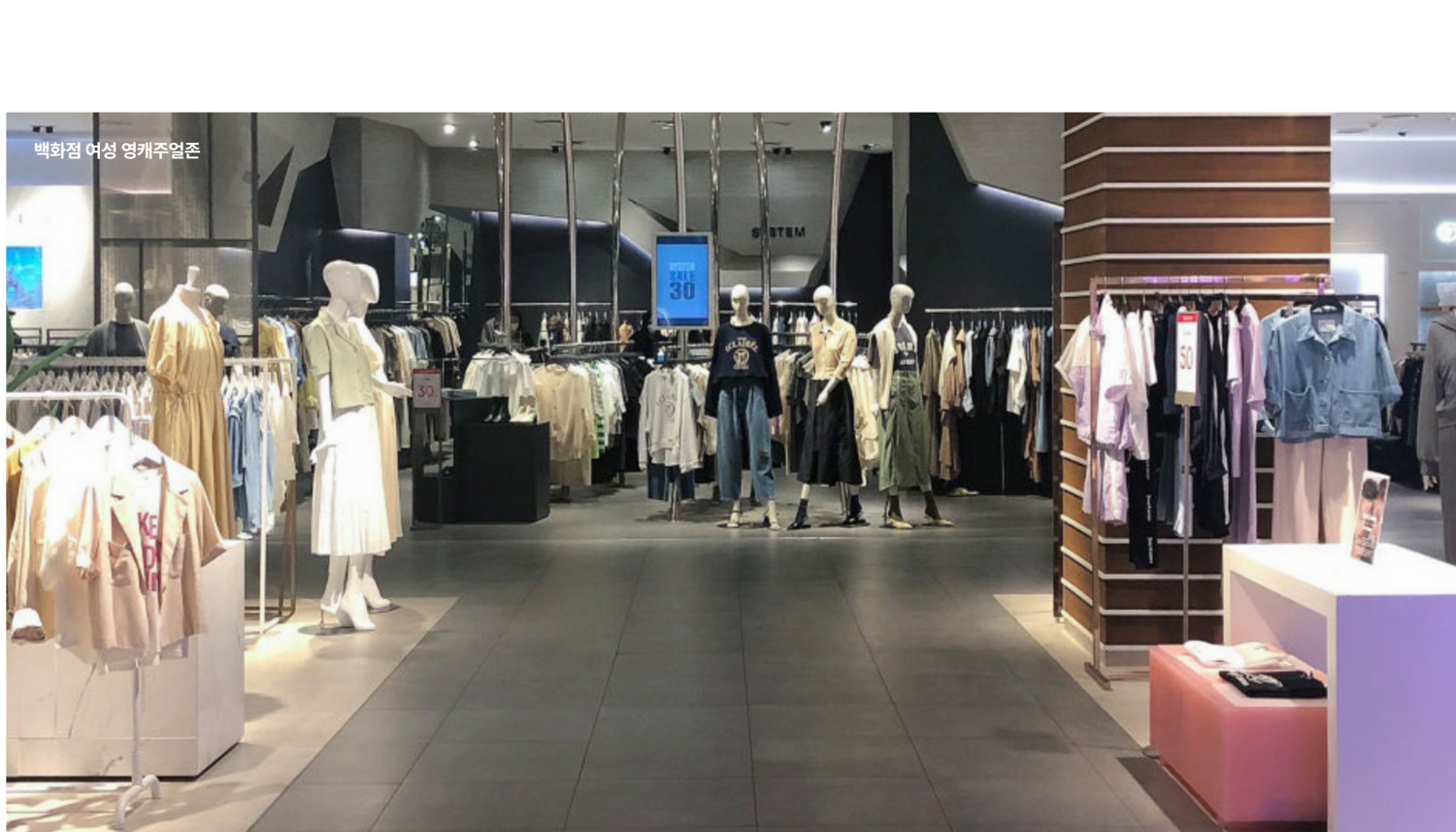
시작해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의 섬유업종 저탄화 전략

세미나가 진행된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이탈리아 패션 산업



FASHION

백화점 여성 영캐주얼, 매출 감소세⁽⁵⁾

15개 주요 점포 모두 하락세로 리딩 브랜드 부재

을 상반기(1~6월) 서울 주요 15개 백화점의 여

성 영캐주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

했다. 롯데 본점, 잠실점, 신세계 강남점 등 모든

점포가 매출 하락을 겪었다.

롯데백화점은 본점 -19%, 잠실 -10.8%, 영동

포 -8.9%, 노원 -4.8%, 인천대미널 -10%, 현대

무역센터점 -34.4%, 천호 -2.9%, 신촌 -14.7%,

목동 -27.4%, 마포 -8.9%를 기록했고, 신세계

백화점은 본점 -5.8%, 강남 -8.7%, 의정부점

-15.7%를 기록해 여성 영캐주얼존의 하락세가

심각했다.

상반기 패션 유통 전반이 어려웠지만, 특히 영

캐주얼 매출 감소가 두드러진 이유는 주요 점

포들의 리뉴얼과 매장 축소, 지난해 보복 소비

의 영향이 줄어든 것이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

며, 또한 물가와 이자율 상승으로 가져본 소득

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신세계 강남, 현대 무역센터, 목동, 판교 등 주요

점포들은 매장 축소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많은 점포들이 리뉴얼을 준비 중이

다. 지난해에는 원가 상승으로 인상된 가격에도

보복 소비 심리로 매출이 견인됐지만, 올해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가격 저항감이 더해졌다.

여성 영캐주얼은 새로운 소비 세대를 흡수하지

못하고, 신흥 브랜드와 온라인, 해외 브랜드에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다. 시스템, 스튜

디오 톱보이, 보브 등 주요 브랜드들도 대부분

점포에서 매출 감소를 겪었고, 상당수 점포에서

상위 3위권 브랜드로 밀려났다.

전체적으로 특정 브랜드의 독주가 아닌, 보브,

스튜디오 톱보이, 주크, 램, 베네통, 로삼, 숲 등

이 점포별로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점포별로 확

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브랫' 포스트를 취하고 있는 찰리 XCX.



브랫 그린으로 물든 패션 브랜드

FASHION

'브랫 그린(Brat Green)'이 뭐야?⁽⁶⁾

MZ세대에게 합한 색상으로 인정

작년 여름이 바비 핑크로 가득했다면, 올 여름

은 '브랫 그린(Brat Green)'이 시즌이다.

브랫 그린의 '브랫'은 공식적인 컬러이지만 아

나 영국의 싱어솔라이트 찰리XCX가 지난 6월

발매한 정규 앨범의 타이틀이다. 사전적 의미로

는 '버릇없는 녀석', '악동', '괴맹이' 등을 의미하

는 것이다. 찰리는 '브랫'이라는 의미를 '똥배 한

값, 라이더 한 개와 브래지어 없이 끈 달린 흰색

상의를 입는 사람'이라는 상징적인 컨셉으로 표

현하기도 했다. 찰리의 브랫 앨범이 미국 '빌보

드 200'에서 3위를 기록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브랫의 라임 그린 색은 젊은 층 사이에서

가 '협함'을 상징하는 색으로 통용됐다.

여기에 지난 7월 22일에는 찰리가 자신의 X에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발표한 후 "카말라는 브랫(kamala IS brat)"라

는 해시지를 남겨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매시즈 팀은 공식 캠페인 SNS 페이지의 헤더를

라임 그린으로 변경했다.

소셜 미디어 분석 회사인 런치메트릭스에 따르

면, 'Brat' 앨범은 미디어 영향 가치에서 2,250

만 달러를 창출했다. 패션 검색 엔진 Lyst에 따

르면, 6월 말 이후 '슬라임 그린' 패션 리스트

리에 대한 검색이 17% 증가했다고 한다. 패션

매거진, 주요 일간지에서도 '브랫 그린'을 키워

드로 한 기사를 작성했다.

발렌티노의 PP 핑크, 에르메스 오렌지, 보테가

베네통 그린과 마찬가지로 'Brat' 그린의 올

름 시그니처 색상으로 물들고 있다.

1. VOGUE, David Cash and the Digital Fashion Designers Council(DFDC) on Future-Forward Fashion, 24년 8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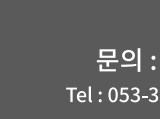
2. 아크테릭스, 아크테릭스 x 스kip 'MO/GO' 로봇 하이킹 팬츠 공개, 24년 7월 29일

3. 국제섬유신문, 2024 프리뷰인서울 역대 최대규모 21일 개막, 24년 8월 2일

4. FASHION NETWORK, Italian textile and apparel sector faces increased slowdown in first half of 2024, 2024년 8월 2일

5. W, 14 퍼센트, 서울 주요 15개 백화점 여성 영캐주얼 매출, 24년 7월 25일

6. W, 14 퍼센트, Green Pieces That'll Have You Looking 'Like an Icon', 24년 7월 26일

FABRIC DIVE
Virtual Fabric Business Platform문의 : 다이텍연구원 소재빅데이터연구소
Tel : 053-350-3734, 3743 Email : fabricdive@dyetec.or.kr

JOIN US